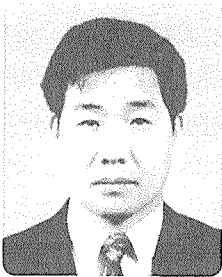


이라크의 시장참여와 국제석유정세 전망



구 자 권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이라크 전쟁 종료이후 석유생산 및 수출 시설이 복구되면서 금년 7월부터 이라크 석유수출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이라크 공급재개가 석유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승전으로 이라크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라크의 공급능력이 대폭 증대되면서 과잉 공급 상황이 야기되고 OPEC이 와해되어 저유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러시아의 급속한 공급증대와 맞물리면서, 저유가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장미빛 주장으로 비약하기도 한다. 석유시장의 전통적인 견해는 석유는 기본적으로 고갈자원이면서 중동이나 OPEC지역의 자원편재가 매우 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고갈이나 자원 편재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장기적으로 세계석유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인 반면, 비OPEC지역의 생산은 자원부존의 한계로 빠른 시일내에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OPEC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라크의 공급 잠재력 및 러시아의 공급 잠재력을 고려할 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가? 과거 40년 이상 석유 시장을 지배해온 OPEC의 와해를 거론할 만큼 이라크나 러시아의 석유 공급 잠재력이 지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영향은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은 1990년 걸프전전에 350만 B/D 수준이었으나, 이후 신규유전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유전의 성숙화 및 기존유전의 적절한 유지(maintenance)실패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현재의 시장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영향에 불과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의 석유공급능력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은 1990년 걸프전전에 350만 B/D 수준이었으나, 이후 신규유전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유전의 성숙화 및 기존유전의 적절한 유지(maintenance)실패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2002년말 생산능력은 대략 280만 B/D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전후 지속적인 복구로 200만 B/D의 생산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는 석유공급측면에서 매우 불운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석유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되는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석유자원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이라크의 공식 확인 매장량은 1100억 바렐로 사우디에 이어 2위의 국가이나, 비슷한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보다 생산능력은 크게 뒤지고 있다. 1980년대의 8년간 이란-이라크전쟁, 1990년 걸프사태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UN 제재 조치 등으로 이라크는 지난 20여년간 제대로 된 석유탐사 및 개발을 시행하지 못했다. 일부전문가들은 이라크에 제대로 된 탐사가 실시될 경우 매장량은 사우디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라크는 이미 발견에 성공했으나,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많다. 80여개의 유전중 80% 이상이 미개발된 유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석유자본이 투자되는 본격적인 석유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라크 생산량은 600만 B/D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쿼타 배분을 둘러싼 OPEC내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는 OPEC의 와해나 과잉공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라크 석유 잠재력을 고려할시 이러한 생산능력증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 생산능력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생산능력증대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전제할 경우 타당한 이야기다. 이라크는 현재 전쟁전의 생산능력을 복구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것은 기존유전의 생산을 복구하고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라크의 당면 목표는 2002년말의 280만 B/D로의 생산 복구다. 이라크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최근 격증하고 있는 이라크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 및 치안 불안 등을 고려 시 대부분 전문가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라크 생산능력을 복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수출 송유관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렵다. 이라크는 남부 바스라유전(180만 B/D 생산능력)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경우 폐만의 바스라석유터미널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부 키르쿠크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100만 B/D 생산능력)는 터어키를 경유하여 지중해 Ceyan항으로 수송되어 수출되는데, 동 송유관은 계속되는 사보타지 및 테러공격으로 전쟁후 6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가동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바트당 잔당들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석유시설공격"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특히 동 송유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 송유관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석유생산은 210~220만 B/D 수준을 넘기 어렵다. 이것은 석유생산설비 복구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이라크 내 정정이나 치안의 안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280만 B/D의 생산능력의 달성도 2005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1990년 걸프사태전의 350만 B/D

수준으로의 생산능력증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유전의 복구 및 신기술적용, 기존 유전의 추가 개발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도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생산능력증대와 함께 송유관 및 수출터미널 확보등 수출능력 증대도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그렇다면, 혹자가 주장하는 600만 B/D로의 생산증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기존 생산 유전 외에 미개발 유전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이라크 내 유전중 80%정도가 미개발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개발을 위하여는 많은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동 유전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시 이라크가 단독으로 개발할 여력은 없다. 결국 국제석유사(IOC)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석유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한다. 국제 석유사들은 이라크 정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군정하에서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 예를 들면, 후속 이라크 민간정부가 계약의 유효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세인정부시절 대부분의 유전들은 유럽 및 러시아 석유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군정 및 미국 석유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국제분쟁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이라크 헌법제정 및 이라크 민선정부출범, 유전의 기 계약에 대한 분쟁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새로운 참여계약체결, 유전개발 및 수출시설추가 건설등을 고려할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나, 일부전문가들은 2014~15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당기간(최소한 2010년까지는) 이라크 생산능력이 350만 B/D를 크게 넘어서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라크 능력증대 스케줄이 장단기

적으로 OPEC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라크 공급과 OPEC의 구도

현재의 OPEC 시장지배구도는 사우디등 GCC 3개국에 좌우하는 구도이다. 다른 산유국들은 의미있는 잉여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가 생산능력을 현재의 200만 B/D에서 280만 B/D, 350만B/D로 증대시키면, 나머지 OPEC국(주로 사우디등 GCC 3국)이 그만큼 감산해야한다는 점에서 OPEC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년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구소련 국가들의 공급증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어 OPEC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 등 비OPEC국의 증산으로 세계 수요 증대분의 상당 부분이 상쇄된다는 점에서 향후 2년간은 OPEC에게 가장 어려운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은 이라크의 시장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가 상당한 수준의 생산(이란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이라크 증산을 당연시 한다는 묵시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있다. 그렇다면, 이라크 증산이 중단기적(2~3년간)으로 OPEC의 구도를 바꿀 만큼의 파괴력은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라크 생산복구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OPEC의 대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2005년이나 2006년까지 이라크가 350만 B/D의 공급증대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150만 B/D의 생산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수요 증대분을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증산으로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해도 OPEC의 감산소요규모는 150만 B/D내 외라는 점이다. 따라서, OPEC의 현재 쿼타가 2,450

현재의 OPEC 시장지배구도는 사우디등 GCC 3개국에 좌우하는 구도이다.

다른 산유국들은 의미있는 잉여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가 생산능력을 현재의 200만 B/D에서 280만 B/D, 350만B/D로 증대시키면, 나머지 OPEC국(주로 사우디등 GCC 3국)이 그만큼 감산해야한다는 점에서 OPEC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만B/D라는 점을 고려하면, 2,300만 B/D 수준으로의 감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비수기의 경우에는 감산 폭이 더 커야겠지만, OPEC의 최근년 최저 쿼타가 2,170만 B/D라는 점을 고려하면, OPEC이 대처 못할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OPEC의 뼈를 깎는 감산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비OPEC국들은 대폭 증산함으로써 시장쉐어 증대와 고유가를 공짜로 향유하는 사태에 대해서 OPEC이 반발하여 일시적인 증산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 또, OPEC내부에서도 사우디등 GCC국가들의 희생적인 감산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 알제리 국가들은 생산쿼타 증대를 요구하며 쿼타초과생산을 함으로써 시장쉐어증대를 향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발로 사우디가 증산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또, 잠재적인 경쟁자인 이라크의 길들이기를 위하여 사우디가 일시적인 증산 및 유가폭락사태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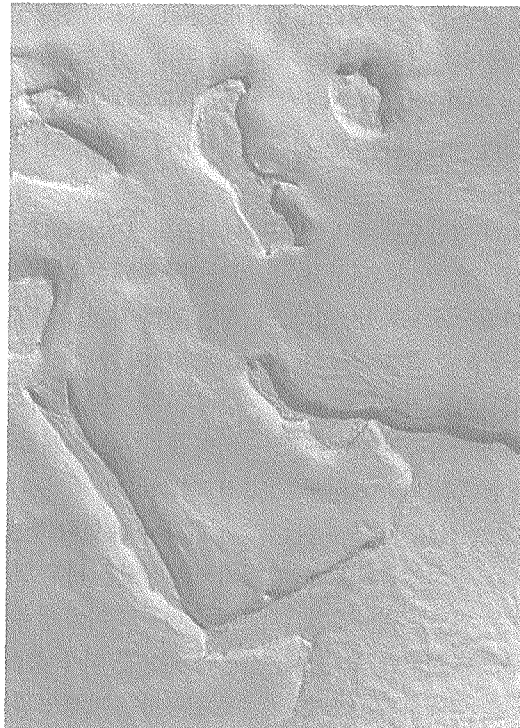
그러나, 유가폭락 및 저유가의 장기화는 산유국 모두에게 재앙이라는 사실을 산유국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태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설사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2000년 도입된 유가밴드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OPEC의 결속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2005년이후의 시장 상황은 OPEC에 더욱 유리하다. 세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OPEC공급의 증대속도는 둔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개발유전이 개발되어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라크의 공급증대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요증대의 상당부분은 OPEC의 몫으로 남게 되어 OPEC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며, OPEC의 공급증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개발유전의 개발로 이라크 생산 능력이 급증(600만 B/D로의)하는 경우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수요증대로 OPEC의 공급여력은 크게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추가 증산분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석유수요가 860만 B/D(연평균 170만 B/D)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900만 B/D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800만 B/D(연평균 160만 B/D)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50만 B/D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이 이러한 저명한 기관의 전망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수요증대추세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두자리수에 가까운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수요증대가 기대되는 인도, 회복기에 들어간 세계 경제 추세 등을 고려해보면 자명해



진다. 반면, 러시아 등 구소련국가들의 생산증대추세는 2010년 이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북해등 비OPEC 성숙유전지역의 생산이 감소추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OPEC공급 증대분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요증대의 상당부분은 OPEC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의 추가 증산분 수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구도로 간다면, 2010년 이후는 OPEC의 시대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이 이라크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라크의 증산을 유도하고 OPEC의 와해나 시장 폭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시각을 깔고 있는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배경이 이라크 석유자원 확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석유시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하여는 이라크내 민간 정부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에 반하여 미국이나 서방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라크는 재건사업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결국 석유 수익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산량을 두배로 늘림으로써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한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라크민선정부의 국내지지기반 상실 및 주변아랍국의 노골적인 압력등으로 이라크 정부 존립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석유정책을 펼쳐온 사우디조차도 주변아랍국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두차례 석유위기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석유시장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사우디나 이라크등 특정국가를 조종하여 시장이나 유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의 시장구조가 이러한 왜곡을 허용하지도 못하게 되어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

이 OPEC이나 사우디의 시장지배력은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확보했을 때만이 가능한데, 이라크의 증산스케줄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시장참여와 시장 영향

결국, 이라크의 공급증대로 단기적으로(향후 2년정도) OPEC의 석유시장지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OPEC의 감산이 불가피하며, OPEC의 시장지배력이 이완되고 일시적인 유가급락사태등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공급 증대 일정등을 살펴보면, OPEC에 요구되는 감산 폭이 OPEC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잉공급이나 유가급락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 이것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OPEC시장지배 구도 자체를 바꿀 정도는 못된다.

더구나, 2005년 이후는 세계수요증대로 OPEC의 시장 쉐어는 다시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OPEC시장지배력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라크의 공급증대나 러시아의 증산 등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석유시장의 전통적인 견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동지역의 자원 편재에 따른 OPEC의 시장지배력의 증대추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보다 분명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저유가가 장기화될 수만 있다면,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장밋빛 꿈에 취해있기에는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 일시적으로 저유가상황이 오더라도 이에 안주 하지 말고, 역으로 우리의 석유공급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의 호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